

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당 후보 지지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생기 정읍시장이 입기 6개월을 앞두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2일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표선약회와 친목모임 장소의 유권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과 2심은 "유권자 다수가 있는 모임에서 총선 관련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생기 시장은 "부덕의 소치다. 시민

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며 "비록 현직 단체장이긴 하나 업무시간 외에 했던 정당인으로서의 소신 발언을 두고 법의 잣대로 재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에 의한 첫 회생양이긴 하나 국회에 발의된 개정법안과 헌법재판소 등에 의해 향후 보완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정읍시는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김용만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지자체 선정... 장관 표창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시민들의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쓴 우수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자전거 이용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헌한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그 결과, 시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이용시설 정비와 시민참여행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하고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시민 참여 자전거 행진 △시범학교운영 △자전거 다목적마당 운영 △생태 자전거 놀이터 조성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지향하는 전주는 자동차를 대신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역할을 할 시기이며,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라며 "생활 속 자전거 이용과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 문의 288-9700



첫마중길 빛의 거리 점등

전주시는 나무들의 생육 휴면기를 겨울철을 맞아 전주 첫마중길을 LED조명과 스노우폴 조명 등으로 꾸민 빛의 거리로 조성하고, 지난 22일 첫마중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시 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마중길 빛의 거리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 첫마중길 빛의 거리는 아름다운 야경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나무가 울타기 전인 내년 3월 초순까지 운영된다.

고준희양 가족 휴대전화 바꿔

경찰, "고양 실종 추정 날보다 4일 빠른 지난달 14일"

경찰이 실종 38일째를 맞는 고준희(5)양의 일가족이 지난달 중순에 동시에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을 포착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고양의 친부인 고모(36)씨와 양모 이모(35)씨, 이씨의 어머니 김모(61)씨가 모두 고양 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보다 4일 빠른 지난달 14일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김씨 등 3명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

하고 지난 22일 압수색을 한 결과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와 이씨의 자택과 고씨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와 고양의 옷가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교체 직전의 휴대전화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이훈 완산시장 취임식 가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제 71대 이훈 완산시장(사진)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한편 이훈 완산시장은 전주 출생으로 1989년 경찰대학 5기 졸업후 경위로 임용돼 2010년 총경으로 승진 후 경기청 광명시장, 경찰청 공감정책2담당관, 서울청 구로시장, 경찰청 정보 2과장을 역임하고 경무관으로 승진해 전주완산경찰서장에 부임하게 됐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들 '상복' 터져

김명지, 직능경제인 감사패
이병하,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
양영환, 그린나래협 감사패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연이어 공로상을 수상받았다.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인후3, 우아·2등)이 직능경제인의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에 앞장 선 공로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 창립총회에서 직능·중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의장은 전주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맡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덕진, 호성동)도 지역 통일 기반 조성에 앞장 선 공로로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위원장은 전주르윈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주최로 열린 '2017년 전북지역 활동평가회 및 표창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지원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동, 평화1동)도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과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사)그린나래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 21일 알펜시아 컨벤션에서 열린 (사)그린나래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그간 (사)그린나래협회에서 실시해 온 사회봉사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사회복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양 위원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이웃에 대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회

전주시가 최근 지역협력기관 및 전주지역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해온 아이와 부모를 위한 가정양육지원사업과 어린이집지원사업의 성과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후기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올해 행

북나눔장난감·도서대여실 이용회원 864명이 등록하고, 총 이용자 9,817명에게 18,482점의 장난감을 대여해줬다. 또, 올해 신설된 도서대여서비스는 1,964명(3,601건 대여)이 이용했다. 키즈N맘놀이실은 9,355명이 이용하고, 시간제보육실은 577건 이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부모교육 67회(1,459명)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 3회 등 활발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민근 기자

"더러워 못해 먹어" 말한 직원 해고한 대표 벌금형

광주교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직원 B씨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말하자 이에 예고없이 해고하고 3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기자

법정에서 A씨는 당시 B씨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밖으로 나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월요일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한 점, B씨가 당장 그만 둘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의 발언을 사직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